

이사야서

이사야서 서론

저자와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

- "여호와와 "야훼께서는 구원이시다" – 아모스의 아들이었습니다.
- 고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모스는 아마샤 왕의 형제였습니다. 이 책에서 이사야는 왕족의 계통이었으며 왕실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7 : 3; 38 : 1; 39 : 3]. 또한 그는 아내가 있었고, 두 명의 아들 – 스알야습 (이름의 의미는 "남은 자들이 돌아옴"), 마헬살랄하스바스 ("전리품을 속히 노략하라"를 의미함)
- 이사야의 사역은 기원전 767 년부터 기원전 697 년까지 였습니다 – 약 70 년이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는 므낫세 왕에 의해 핍박을 받았으며, 히브리서 11:37 로부터 유추 된대로 칼로 톱질을 당했습니다.
- 현 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서의 저자는 여러 명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는 늘 이사야가 유일한 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유주의 비평/평론은 18-19 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더욱 활발 해졌습니다.
 - 한 가지 주된 원인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여러가지의 다양한 개념들과 다양한 사상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또 다른 원인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200 년 후에 있을 고레스 왕에 관한, 시대를 넘어선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설명할 간단한 대답은; 예언은 그 일이 이뤄지기 여러 해 전에 예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 개념의 다양성은 예언서들 가운데 있는 흔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현대 비평/연구에 대한 답/설명입니다.

- 또한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유일한 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 또 다른 포인트: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약 60 번 인용되었습니다. 이 60 번 중 28 번은 이사야서의 후반부 40-66 장에서 인용되었다. 이사야의 이름도 신약에서 11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사도 요한이 (요 12: 38-41)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각각 6 장과 53 장에서 인용했습니다 –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 이사야서 앞과 뒷 부분 모두 이사야가 저자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사야서의 전체가 1947 년에 사해문서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2 세기 기록으로 추정됩니다.
- 또하나의 포인트: 이사야는 매우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의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들은 1 장 1 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왕은 웃시아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처음에서 경건한 자였으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사역을 미뤄지게 만들었습니다. 요담은 두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아하스 왕은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4 번째 왕, 히스기야는 경건했으며, 나라 가운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 또 하나의 포인트: 이사야 시대에는 아람 (시리아), 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등 남부 왕국 유다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북부 왕국들은 아람과 연합해서 남부 왕국인 유다와 싸웠습니다. 불행히도, 남부 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앓수르 민족과 연합하였습니다 (왕하 16:6-7). 그러나

유다는 앓수르 민족으로부터 그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28:28, 32:1).

- 이사야는 북부 왕국이 에굽과와 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행히도 그들은 앓수르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가 억압에서 풀려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습니다 [왕하 18 : 7]. 얼마 후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바빌론과의 관계를 질책해야 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왕하 20 : 12-9].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

- 이사야서는 우리의 현대 책 (우리의 성경)에서 첫번째 선지서이지만, 유대교의 책 (히브리 성경) 가운데서는 이사야서가 선지서들중 (16 개) 첫번째 책입니다.
- 또 다른 포인트: 이사야는 시편을 제외한 다른 선지서와 비교했을 때, 메시아에 대해 풍성하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선지자들 중 복음전도자"라고 불렸습니다.
- 또한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35 장과, 40-66 장입니다 (36-39 장은 역사적인 부분임).
 - 첫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외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두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 1-35 장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 1-12 장: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자세히 나타냅니다.
 - 13-27 장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의 민족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28-35 장에서는 여섯번의 “화(woes)있을 진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후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 역사적 부분 (36-39 장)은 적들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들과, 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묘사합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 40-66 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메시아의 관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책은 재림의 때에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끝납니다.
 - 40-48 장 –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듣고 계시다고 말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며, 우상 숭배를 정죄합니다.
 - 49-57 장 –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묘사합니다.
 - 58-66 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에 관한 요약입니다.

이사야서의 특이 사항들:

a)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Holy One of Israel)

이 표현은 28 번 쓰여졌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제외한 구약 전체에서 이 표현은 7 번만 (왕하, 시편, 예레미야, 에스겔에 기록됨) 사용되었습니다. 주목할 만 한것은 이 표현이 이사야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에 각각 14 번 언급되기 때문에 이 책의 통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하나님의 천사인 스랍의 찬양입니다.

b) 구원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핵심 단어입니다 [12 : 2 와 3 절-'구원의 우물들'; 17:10 - '네 구원의 하나님'; 25 : 9-'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26 : 1-'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다' ; 26:18, 45:8 절 17 절, 46:13 - '구원' 또는 '영원한 구원'; 49 : 6-8 -'구원의 날'; 51:5-6 절 8 절, 52 : 7 -'내 구원이 나갔은즉,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구원의 복음화)'; 52:10, 56 : 1, 59:11 절, 17 절 - '구원의 투구'; 60:18, 61:10 -'구원'].

c)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이사야는 마치 자신의 눈앞에서 그분을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다. [47:4, 48:17 - 약속된 구속자는 여호와 그분이시라는 것이다. 7:14, 9:2, 6, 11 절: 1-2, 48:16 -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4:2, 42:1, 50: 4 및 5 절, 53:1 및 2 절 - 메시아의 수치/모욕; 8:14, 49:4, 53:3 - 메시아를 거부; 50:6, 52:14, 53:3-7 및 10-12 절, 63:9 - 메시아의 고난; 9:7, 11:3-10, 25: 8, 28:16, 32:1, 49:6, 52:15, 53:9-12 및 58-66 장 - 메시아의 영광].

이사야서의 내용

- 1-12 장: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
- 13-27 장: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내용
- 28-35 장: 6 번의 화 (Woe)
- 36-39 장 역사적 내용의 부분
- 40-66 장은 3 부분으로 나뉘어짐: 40-48 장 = 여호와와 당신의 백성에게 귀기울이시며 들으심; 47-57 장 = 메시아의 거부와 고난; 58-66 장 =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

1-12 장

서론:

- 이사야는 주로 남쪽 유다 왕국을 향해 예언하고 있다. 그는 유다를 교정하고 위로 할 목적으로 주로 유다를 향한 사역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었음.
-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의 부담은 주로 유다를 억압하고 있던 국가들에 대한 것이었음
-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 축복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심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온 땅을 축복하시는 것이었다.
- 심판을 담고 있는 예언들은 세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 유다와 예루살렘: 1-12 장
 - 주변 민족들: 13-17 장
 - 신실한 남은 자들: 37 장

1-12 장 :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 이 심판은 1-6 장과 7-12 장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심판을 두 부분으로 나뉘게 하는 것은 웃시야 왕의 죽음이다. 이 기간 동안 선지자에게는 구체적인 환상/이상이 주어졌다.

1 장

- 첫 구절들, 1-9 절에서, 국가로서의 유다의 불행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호와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대화가 있다. 그 대화 가운데서 심판의 필요성이 분명해짐.
-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백성에 대한 당신의 불평을 들으라고 부르신다.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 선지자는 백성이 왜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그들의 죄라는 것에 사람들의 집중을 모으고 있다. 그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반역하고 있다고 말함. 이사야는 단순히 의식과 제사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회개없이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멸시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0-15].
- 1:16-20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협의하고 계십니다 -회개 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 1:21-31 : 이사야는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불가피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은 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도시는 완전히 파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 장

- 1-4 절 :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오랜 후의 일) 이상/환상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그 후일들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이 모든

민족/나라가 흐르는 예배의 본부/중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율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5-9 절 :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행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세상적인 문제/일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부유해졌고 강력 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 10-22 절 :이 장면은 걱정스러운/놀라운 일이지만, 이사야는 이것으로 인해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18 절] 모두가 복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3 장

- 선지자는 심판의 유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주로 통치자들과 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통치자들 [1-15 절] : 그는 정부와 그 모든 조직의 부패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반역과 불의가 만연합니다.
 - 여자 [16 절-26 절] : 그들은 통치자를 통해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여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4 장

- 우리는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봅니다. 여자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을 때, 남편이나 아들인 권세/권위 있는 남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분의 율례 가운데 순종하도록 지시 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부패한 지도자와 여성 사이에는 항상 상관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부르심에서 벗어 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면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부패해 주변 사람들을 부패 시킵니다.
-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엄격하고 심각한 심판이 있습니다: [3 절과 4 절]. 이 정죄는 너무나도 심각하여 죽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한 자' [4:3]들은 남은 자들이 죽음의 형벌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 5 절과 6 절 : 하나님의 영광은 정결을 통해 선언됩니다. 정결화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당신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5 장

- 5 장은 4 장과의 연결된 내용입니다. 심판은 여전히 선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 심판에 대해 더 설명합니다. 그것은 1-7 절, 8-23 절, 24-30 절,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1-7 절 :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위성을 노래하심: 그분께서는 이 포도원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정당화 되십니다. [5-6 절]. 7 절 –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기쁨의 나무입니다.
 - 8-23 절 : 6 가지의 "화 있을 진저" : 1. (8 절) 가난한 자를 독점하고 압제; 2. (11 절) 사치 가운데 사는 통치자들; 3. (18-19 절) 정당화되는 믿음의 부족의 죄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조롱함; 4. (20 절) 명백한 혼란과 많은 혼동; 5. (21 절) 지혜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부재한 지혜; 6. (22-23 절) 공의의 척도를 뒤집음
 - 24-30 절 : 여기서 이사야는 심판의 도구, 즉 이방의 사람들을 불러 오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는 그 나라들의 맹렬함과,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행할 일들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6 장

- 1 장 1 절에서 언급한 이사야의 예언은, 네명의 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웃시야는 세상을 떠났고 웃시야의 통치 가운데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요담과 아하스 시대에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히스기야 시대). 이 두 번째 시기에서 선지자는 새로운 연장된 단계를 시작하며, 그것은 35 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구체적인 비전/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새로운 영적 단계에서는 새로운 비전/이상과 새로운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1-4 절 : 이사야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스랍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에 둘러싸여 높고 높으신 보좌에 계십니다. 또한 문지방의 터가 기둥이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 5-7 절 : 이사야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6 가지의 '화로다'를 주고 나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에게 '화로다'를 선포합니다. 천사들에 둘러싸여 계시고 하늘이 찬양하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돌보시기 위해 천사들과 하늘을 무시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조차도 찬양을 멈추는 모습을 봅니다 -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솟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그의 악과 죄가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다고 선포합니다.
- 8-13 절 : 이제 선지자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 할 준비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명이 시작됩니다 (8-9 절). 그 사명은 연장/확장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9-12 절). 그러나 이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정결과 새롭게 됩니다 (13 절).

7 장

- 1-9 절 : 앞 장에서 선지자의 새로운 사명이 선포 된 후, 우리는 선지자와 아하스 왕과의 대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대적하여 동맹을 이룬 두 왕, 르신 왕 (시리아/아람 왕)과 베가 왕 (이스라엘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분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음모가 실패 할 것이라고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 10-16 절 :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 달라고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격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왕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믿음의 부족함을 책망합니다 (13 절). 그 후 즉시 이사야는 임마누엘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 책망과 임마누엘의 예언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사야는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징조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잠깐 멈춥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머지 이사야서 가운데 확장되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17-25 절 : 왕이 하나님을 향한 거부와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 심판으로 앗수르는 유다를 침략 할 것입니다. 이 앗수르의 침략은 역사적 부분인 36-37 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8 장

- 이 장의 열쇠는 16 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의 사역을 한동안 잠깐 멈추어서 제자들과 함께 격리되어 그들의 세대 가운데 징표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 1-4 절: 그는 큰 서판에 다음의 말씀을 쓰며,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마헬살랄하스바스라에게 속한” – 그 의미는 전리품과 재물/먹이가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 5-8 절 :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하신 것과 같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 [6 절]로 상징되는 안전한 구원으로 인도 하실 하나님의 잔잔한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열하고 강렬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7, 8 절].
- 9-16 절 : 여기에서 선지자가 분명히 하는 것은, 이 작은 제자들의 집단에게 주님이 안전함이 되시고 주님이 친히 보호가 되심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은 걸림돌이 되시고 심판이 되실 것입니다 [14, 15 절].
- 19-22 절 : 이사야는 악한 영을 따르고 영매와 마법사를 찾는 사람들에 관해 작은 제자들의 집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르는 결과는 어둠과 고뇌가 될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9 장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9-10 장

- 9:1-7 절: 여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의 오심과 그 결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후에 우리는 9 장 8 절-10 장 4 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네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은 같은 문구로 끝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12, 17, 21; 10:4]
 - 9:8-12
 - 교만함/자만함에 관한 첫 번째 심판: 그 이유로, 그분께서는 아람과 블레셋 민족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풀어놓으심.
 - 13-17 절
 - 그들의 마음에는 완고함과 반항이 있어 반응의 결여와 냉담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들을 인도 할 책임이 있는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 18-21 절

- 내부적인, 즉 같은 민족 안에서 서로의 갈등 (종족 간 갈등)에 대한 심판. 그들은 자신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v.20]

○ 10:1-4

- 재판관들과 통치자를 향한 내용:. 그들의 심판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반역은 계속 될 것이며 그들을 악한 상태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심판 중에 펼쳐 있는 것입니다.

○ 10:5-27

- 5-11 절 : 앗수르를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앗수르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12 절].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앗수르 민족의 목적 사이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앗수르인들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앗수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를 방해하고 중단시켜 앗수르가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 12-15 절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앗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합니다.
- 16-19 절 : 그는 앗수르 사람들에게 있을 심판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 20-27 절 : 이사야는 신실한 남은 자들의 태도를 묘사합니다. 이사야는 그들로부터 앗수르인들의 적대를 가져가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지시합니다 [27 절]. 그분께서는 앗수르를 향한 당신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 하십니다.

- 28-32 절 :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 오는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선지자는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예언적인 눈으로 보고, 그들이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동하는 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실한 남은 자들은 보존 될 것입니다 [27 절]. 그는 앗수르 군대가 통과 할 국가들을 (아얏, 미그론, 믹마스) 열거합니다.
- 33-34 절 : 앗수르 또는 그 어떤 강력한/자만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 키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나무들로 잘 알려진 레바논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반항한다면).

11 장

- 1 절 : 선지자는 앗수르가 심판 직전에 처해 있고 앗수르 제국이 끝날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왕국, 즉 메시아의 왕국이 승리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예언적 눈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심판의 열매입니다 - 심판은 새롭고 축복 된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왕국이 '가지'로 (1 절)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왕국은, 다윗의 자손, 이새의 자손인 메시아이신 이 가지의 출현으로 시작됩니다 - 그는 이 가지를 설명합니다.
 - 1-9 절 : 그분의 외모, 기름 부으심, 그분의 행실 및 그분의 나라 통치 방식. 그는 또한 이 모든 것들의 결과에 대해 예언합니다: 저주가 풀리고, 피조물들의 본성이 타락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 10-15 절 : 메시아의 나라의 출현을 나타내는 표징은 '깃발 (banner, 기치)'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구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모든 곳에서부터 당신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시며, 북쪽과 남쪽 왕국 사이에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13 절]. 북쪽 왕국은 예언 적으로 에브라임이고 남쪽 왕국은 유다입니다. 어떤 이들이 그 둘의 연합이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지자는 그들이 결코 연합 될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장면이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적들에 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의 선언이 있었던 다른 출애굽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12 장

- 12 장은 앞 장의 연장입니다. 이사야는 재림에서의 메시아의 나라의 출현으로 인해 나타날 형상을 묘사합니다. 그는 두 부분을 제시합니다:
 - 1-3 절 :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찬양과 기쁨.
 - 4-6 절 :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여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될 하나님의 백성

13 장

- 서론
 - 여기에서 1 ~ 35 장의 두 번째 세부적 부분이 시작됩니다 (13-27 장: 열방에 관한).
 -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서론적 포인트: 앗수르와 바빌론 제국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앗수르는 기원전 2025-610 년 (1,415 년 동안)에서 존재했으며 바빌론은 기원전 1900-1600 년 (300 년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바빌론을 언급 할 때 앗수르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우리는 21 장에서 다시 초점이 될 바빌론의 심판에 대해 읽습니다. 앗수르 제국은 더 크고 더 오랫동안 확장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을 승리 가운데 정복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0 장 12-14 절에서 그 힘과 자부심에 대해 읽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장은 이미 쓰여진 내용의 연장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기 바빌론은 앗수르 제국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심판은 앗수르에 대한 것이다. 13 장에 선언 된 심판은 앗수르에 대한 것이다. 14 장 25 절에는 심판이

앗수르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
 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 1-10 절:

- 선지자는 심판의 날, 주님의 그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앗수르인들 (바빌론)과 심판을 위해 싸울 군대를 모으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그 목표가 전반적인 악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 절]. 그는 16 절까지 심판을 계속 설명합니다.

- 17-22 절:

- 이사야는 또한 메대 왕국과 바사인들이 바빌론 후에 통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인은 바빌론과 앗수르의 형벌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14-15 장

- 1-27 절: 이사야는 앞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계속 말합니다.

- 28-32 절: 그는 블레셋에 관해 말합니다.

- 15:1-9: 그는 모압에 관해 말합니다.

- 14 장 1-27 절

- 이 장은 이전에 언급 된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앗수르의 억압 때문입니다.
- 1-2 절 :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땅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그들의 억압을 덜어 주실 것이며, 억압 한 자들이 그들에게 복종하여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선언 합니다.
- 3-23 절 : 선지자는 이스라엘 입에 조롱의 노래를 넣는데, 이 노래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실제로 노래 형태의 시입니다.

- A) 4-8 절 : 앗수르가 멸망 되었을 때, 모든 민족들은 그들을 앗수르가 정복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안도했습니다.
- B) 9-11 절 : 지옥의 반응. 현재 지옥에 있는 이전 왕국의 모든 왕들은 앗수르의 왕이 그들과 합류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나라가 몰락 할 것임을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 C) 12-15 절 : 그 몰락/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자신들을 신격화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또 다른 신으로 바라봄) [14 절]. 이것은 에덴동산에 있던 뱀의 생각과 동일했습니다.
- D) 16-19 절 : 앗수르 왕 (바빌론)의 마지막. 모든 왕들은 무덤에 누워 있지만, 그는 무덤에서 내쫓겨납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렁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vv.18,19].
- E) 20-23 절 : 제국의 마지막 멸망의 선언. 이것은 그들의 후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22 절].
- 24 절부터 15 장 끝까지
 - 여기에는 이전에 언급 된 것과 관련된 세 개의 연속되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람, 블레셋 및 모압에 관한 것입니다.
 - 14:24-27
 -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앗수르를 결코 멸망 시키겠다고 선언하시며, 맹세함으로써 이것을 보여 주십니다
 - 14:25 : 바빌론과 앗수르의 이름은 서로 교체되어 지명됩니다
 - 14:28-32
 - 블레셋에 대하여: 블레셋 자체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앗수르에 의해 억압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앗수르가 멸망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여기서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15 장

- 모압과 모압의 멸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은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며, 그들은 슬픔과 눈물로 한탄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5 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지자 자신도 그들의 고통에 영향을 받습니다 -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 28 절 : 아하스 왕의 죽음의 중요성.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가져 오게 되는 것으로써, 이전의 모든 왕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15 장이 14 장에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앗수르, 블레셋, 모압에 관한 세 가지 연속적인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16 장

- 이것은 모압에 대한 대화에 연장선 입니다. 선지자는 1 절에서부터 이 장의 끝까지 이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압에게 시온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제안하고, 모압 사람들이 흩어져 이제는 예돔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돔의 수도인 셀라에서 양들을 보내도록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유일한 안전은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며 제물을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를 믿도록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11 절에서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 조언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 이 파괴/멸망은 모압 전체와 모압의 포도원으로 확대됩니다. 선지자 자신도 이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며, 그것은 항상 [9 절과 11 절] 예언된 고난에 동참합니다.
- 12 절 :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그들의 기도는 응답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상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13-14 절 : 이사야는 앞으로 3 년 동안 일어날 일은 이전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17 장

- 1-5 절 :이 예언은 다메섹에 대한 것이고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선포에 관한 것입니다 [1-2 절]. 우리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하고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이 파괴되면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4 절]. 선지자는 이 동맹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닥친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6 절에까지 계속됩니다.
- 7-9 절 :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책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하스 왕이 마지막으로 아람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신들 중 일부를 이스라엘로 가져 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람의 승리의 원인이 그들의 신들 때문이라고 속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왕하 16:10-16].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그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 바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10-11 절 :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분을 잊어 버리고 그 우상들을 바라 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추수는 열매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 12 -14 절 : 선지자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자신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족하고 그들을 보호 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18 장

- 1-2 절: 이사야는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스 땅입니다. 구스는 이집트, 수단, 에디오피아를 포함합니다. 날개 치는 소리는 그 지역의 특징 인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앗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요구하려고 이스라엘로 온 구스의 사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앗수르가 모든 나라들에 대한 권세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자들이 강으로 배를 타고 빨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지금은 동맹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3 절 :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적시를 기다리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그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앗수르의 심판이 완성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앗수르를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징계함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전 장들을 통해 알고 있음)
- 4-6 절 : 선지자는 앗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다는 하나님의 설명을 전달합니다. 그 후 그분께서는 앗수르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6 절).
- V.7 : 선지자는 구스를 향해 다시 말합니다. 그는 앗수르의 멸망이 모든 나라에 알려진 후에 구스의 사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환영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 동맹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19 장

- 이집트는 구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장은 18 장의 연장선입니다. 이사야는 구스의 사자들에게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조언 한 후 구스의 일부로 이집트를 언급 합니다.
- 1-4 절 :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한 심판으로 빠르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오실 때, 넓게 퍼진 우상 숭배와 마법들이 노출 될 것입니다. 또한 분열이 일어나고 억압적인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혼동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이 이스라엘에 애굽에 있을 때 매우 잔인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 5-10 절 : 내적, 경제적 붕괴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들의 주요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은 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 결과 농업이 소멸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의존하는 수산 상업이 붕괴 될 것입니다. 베를 짜고 꿰메는 사람들의 모든 세공은 중단 될 것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침체 될 것입니다.

- 11-15 절 : 선지자는 애굽의 거짓 지혜가 육신적이고 종종 사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로하는 것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완전히 혼란/혼동과 명백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혼동의 영을 섞으셨음으로, 높은 자나, 단순한 자나,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
- 16-17 절 : 모든 사람들을 둘러싼 떨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에게 정복 당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떨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17 절].
-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일부 통치자들이 (이사야 30 장에서 언급 한 것처럼) 앗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선지자는 애굽이 불행한 나라가 되어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이 예언의 최종 성취는 모든 예언과 마찬가지로 종말에 있을 것입니다).
- 18-22 절 : 선지자는 이 심판 후에 애굽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제단과 기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아마도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예배를 나타내는 반면, 기둥은 이집트 전체의 대중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집트가 주님을 구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애굽은 주님께 회복됩니다 - 징벌 받았지만 치유되었습니다 [22 절]
- 23-25 절 : 이사야는 미래의 일에 대한 징후를 줍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억압했던 앗수르는 이집트와 함께 그들과 교제 할 것입니다. 이 교제는 온 땅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20 장

- 선지자는 구스 전 지역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애굽은 희망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스 전 지역에 대한 심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심판이 이행되는 시간을 밝히는데, 두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 앓수르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할 것입니다.
- 선지자는 맨발로 걷고 겹옷을 벗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 4 절 : 선지자는 앓수르가 애굽과 구스를 이길 때, 그들은 수치의 일환으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 5-6 절 :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을 구하는 애굽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1 장

- 여기에는 세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바벨론, 두마 (에돔), 아라비아.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 “해변 광야”는 바사 해만 (페르시아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는 엘람과 메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왕국은 앓수르와 바빌론을 점령 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바사가 바빌론에 들어가 앓수르를 점령 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앓수르의 일부이므로 바빌론에 들어가는 것은 앓수르를 점령하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바사 전역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사 해만의 (페르시아만) 왕은 므로닥발라단 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는 앓수르 제국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 바빌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바빌론을 정복 할 수 있었고 자신을 바빌론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가 바빌론을 정복 한 후, 그의 군대는 그들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 긴장을 풀 상태였기 때문에 앓수르인들은 되돌아와서 공격하고 그들을 쫓아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사의 시도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 또 다른 포인트: 유다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사가 바빌론과 앓수르를 전복시킬 수 있다면 유다 사람들도 앓수르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사는 이 시도에 실패하고 경비병과

적절한 수비 전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당했습니다. 유다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자신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억압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 1 절 : 해변 광야를 넘어 (바사 해만 (페르시아만)으로 둘러싸인 바빌론)
- 2 절 : 바사가 이 사건들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는 승리를 통해 한숨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자신도 이 사건들을 매우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으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 3 절: 선지자는 이 상황에 대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4 절 : 선지자는 자신이 기절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 5 절 : 선지자는 바사 군대가 바빌론에 들어간 후 바빌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바사 사람들은 평상시와 같이 계속 먹고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세워 놓은 자신들의 방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5b 절]라고 지시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린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방패에 기름칠을 하여 매끄럽게 하여 화살이 뚫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느긋했고 또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 6-10 절
 - 유다에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주의 깊은 귀를 기울이고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었지만 바빌론이 앗수르에게 함락되었기 때문에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7-9 절].
 - 바빌론이 무너지고 앗수르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짓밟고 타작하려고 옥수수를 모을 것이다 [10 절]
- 11-12 절
 - 앗수르의 억압을 받고 있던 두마는 선지자의 마음에 '짐/부담 burden'[11 절]이었습니다. 앗수르에 대항하는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돔의 수도인 세일도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 앗수르의 억압의 밤이 언제 끝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 ‘아침이 오나니...’: 앗수르를 향한 대한 반란이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앗수르를 전복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느낍니다
- ‘... 밤도 오리라’: 하지만 앗수르에 대한이 모든 반란이 실패하자 억압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 에돔은 유다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사가 앗수르를 침공했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들이 억압 받고 있는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앗수르는 바빌론을 되찾았으므로 에돔의 억압의 밤이 다시 임박했던 것입니다.
- 12 절 : 마치 이사야가 두마에게 모든 사건을 계속 지켜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 13-17 절 : 아라비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선지자는 드단 사람들과 데마를 포함한 특정 아라비아 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13-14 절 : 선지자는 그들의 원시적 삶의 방식을 묘사합니다
 - 15-17 절 : 이사야는 1 년 안에 드단과 데마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2 장

- 환상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 관한 예언 (신약성경에서 기드론 시내으로 언급 됨 [요 18 : 1]) .
-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13-27 장은 열방/나라들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22 장에서 이사야는 유다에 대한 예언을 넣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서 그 나라들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선지자의 신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유다 주위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유다는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울부짖고 모욕과 수치와 전쟁을 겪고 있지만 이사야의

백성들은 평상시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일상 생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그는 그들에게 변화하라고 부릅니다 – 현재의 일상 가운데서 무감각하지 말고 “통곡하며 애곡하며[12 절]” 하라고 명령합니다.
- 14 절: 이 죄에 대한 속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 12-14 절에서 백성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의 구절들로 돌아가겠습니다.
- 3-4 절 : 선지자는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통곡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위 될 것이며 그들의 통치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3 절].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들이 무감각하게 사는 대신 통곡하고 애곡하도록 부릅니다.
- 8-11 절 : 그들은 전쟁을 치르는데 있어 자신들의 개인적인 방식에 의지합니다.
 - 그들은 필요한 재료를 취하고 벽을 세우기 위해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 그들은 또한 운하를 새 방향으로 돌리어 앗수르인들이 그들을 포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포위 당하게 되면 영향 받지 않도록 그들은 물을 저장하였습니다
 - 자신들의 무기, 저수지, 및 자신의 방어선에 의존하므로 앗수르를 정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 보거나 그분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1-11 이 부분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 이부분부터 14 장까지 이사야는 36-37 장에 기록된 대로 유다와 앗수르 사이의 전쟁을 암시합니다.
- 15-19 절 : 셉나는 히스기야 왕의 총책임자/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왕을 대신하여 엘리아김과 요아와 함께 앗수르인 랍사게와 그의 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하 18 : 17-19, 26 에 기록되어 있음).

- **셉나**가 왕 아래 최고의 직위를 차지한 자 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백성들을 향해 있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있었습니다. 이시기는 완전히 혼돈/혼란스러울 때였는데, 셉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있는 높은 곳에 묘를 짓는 문제에 사로 잡혔습니다.
- 선지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곳에 왜 있는지 조차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무덤에 묻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공처럼 말아 싸서 광대한 나라에 던질 것이다” (아마도 앓수르에) 라고 말합니다.
- 19 절 셉나는 자신의 관직에서 내쫓김 당할 것입니다.
- 20-24 절 : 이사야는 엘리아김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신실하기 때문에 셉나의 정반대인 자로 칭찬받습니다.
 - 21 절 : 셉나가 쫓겨 난 후에 셉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아버지에 대한 중요한 구약의 언급입니다).
 - 23 절 : 그는 못이 단단히 박힘 같이 고정 될 것입니다.
 - 24 절 : 소박하고 가난한 자들, 부유하고 위대한 자들 모두가 그를 의지할 것입니다.
- 25 절: 그러나 이와 같이 단단한 못이라도 제거 될 때가, 즉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올 것입니다.

23 장

- 1-9 절 :이 예언은 레바논의 한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두 곳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바다를 통해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배를 타고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 1 절 : 선지자는 다시스 (현재 스페인의 일부)에서 두로로가는 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항해중 두로가 (아마도 앗수르에 의해) 파괴되었다는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구브로에서 멈췄습니다.
- 3 절 : 이집트도 두로와 곡물 거래를 했으므로 두로의 망한 소식을 듣고 놀라고 충격받고/슬퍼했습니다.
- 4 절 : 선지자는 바다를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예언적 특성으로, 자연의 요소들이 의인화되어 목소리를냅니다. 바다는 두로와 시돈이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책망/비난합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 그들의 부가 쉽게 그들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무역을 하면서 그들은 속임수와 악을 사용하여 부를 빨리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 6 절 두로와 시돈의 경제 붕괴로 인해 두로의 사람들은 슬피 울 것입니다.
- 8 절 : 두로는 왕을 위한 왕관을 생산 했기 때문에 왕관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함과 속임수가 가득한 무역으로 인한 그들의 모든 자만함과 부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 10-12 절 : 선지자는 전체 지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북서쪽, 이집트는 남동쪽, 구브로는 북동쪽입니다. 그들은 두로가 망하고 파괴됨으로 인해 자신들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 12 절 : 그는 이 나라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경제 붕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브로에서 무역/거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 두로처럼, 구브로로 넘어 가려고 하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 13 절 : 그들에게는 이제 보호가 없습니다. 바빌론이 정복 된 것처럼 (21 절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이사야는 이 나라들에게 자신들이 무역의 세계에서 안전하다고 속임 당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 15-18 절 : 약 70 년 동안 두로가 잊혀 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무역/교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앗수르가 두로의 무역을 중단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무역으로

돌아오지만, 무역을 수행할 때, 동일한 악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생의 노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5 절].

- v.18 :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그 수익은 주님의 종들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24-27 장

- 일반적 서론
 - 이 장들은 '이사야의 비전(환상/이상)'이라고 불립니다
 - 여기서 지명된 모든 장소들에 대한 앗수르의 공격들은 모든 나라로 확장된 앗수르의 파괴의 예들입니다.
 - 온 땅으로 퍼진 이 파괴는 심판과 정결케 됨 후에 영광과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4 장

- 1-13 절 : 선지자는 여기에서 율법에 대한 소홀함과 영원한 언약의 깨뜨림으로 인해 초래 된 저주 때문에 온 땅에 대한 일반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추수 가운데 있어야 할 축복이 없고, 기쁨이 없으며, 모든 곳에서 슬픔/애통함과 파괴만이 있는 – 그 죄악과 허물의 모든 결과를 설명합니다.
- 14-20 절 :이 고통스러운 그림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금방 사라지고, 온 세상 가운데 파괴적인 모습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장은 찬양에 관한이 몇 마디 외에는 멸망으로 특징지어 집니다. 이 대목은 영적인 일들에 피상적으로 사는 인류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마치 선지자가 모든 것에 퍼진 멸망을 예언적으로 바라 보면서, 이러한 가장자리에서 나타난 찬양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 21-23 절 : 여로 주석들은 이 구절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적하는/반대하는 높은 군대들과 (악한

마귀의 능력들) 땅의 왕들이 얼마 동안 옥에 갇히고 그들의 악한 시도들이 멈추게 될 특정한 날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25 장

- 1-5 절:
 - 이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전 장면은 주님의 통치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찬양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1 절]
 - 주님께서는 반대/대적하는 도시/성읍들을 정복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그분을 반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새화 된 폐허의 도시로 만드셨습니다.
 - 3 절: 주님께서은 모든 나라가 당신께 복종하실 것을 내다보십니다 –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난하고 궁핍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실 것입니다.
 - 4 절: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자들은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5 절: 교만한 나라들의 소리들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 6-8 절
 - 6 절 : 주님과 그분의 백성의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가득 찬 훌륭한 연회가 될 것입니다.
 - 7-8 절 :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사망이 불바다에 던져지고 [계 20:14] 그분의 통치 후의 있을 것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통치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상태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9-12 절
 - 9 절 :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그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어떻게 선포할지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 10 절 : 여기서 모압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에 저항하는 모든 나라와 힘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정복되고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 11 절 : 모압은 우상 숭배를 시도하기 위해 손을 내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흐름에 거슬러 헤엄 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의 손의 능숙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만함/자존심을 모욕하실 것입니다.
- 12 절: 주님께서는 모압과 마찬가지로 열방의 반대/반역하는 모든 노력들을 당신의 통치 아래 정복하실 것입니다.

26 장

- 앞에서 계속되는 찬양 노래의 장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 이것의 핵심은 3 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온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합니다.
[1-4 절]
- 5-6 절 : 모든 오만한 자들을 낮추시고/파괴하실 것이며, 가난하고 학대받던 자들이 그들 위를 짓밟을 것입니다
- 7-9 절 : 여기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의로움으로 정직하게, 곧은 길로 걸으며, 그들의 마음을 밤낮으로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암시합니다.
- 10-11 절 :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다루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은 그들을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의로운 분위기와 주님의 위엄조차도 그들을 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위기와 찬양의 노래에 민감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악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원수들의 불에 의해 먹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1 절].
- 12-15 절 :여기서의 말씀은, 일부 반역하는 왕들/권위자들의 지배/영향권 아래 있지만,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전달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이 권위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3-14 절]. 신실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 16-18 절 : 대환난 중에 [렘 30 장]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산통 중에 시간이 채워 질 때까지 울부짖는 여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 19 절 :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때에 구약의 성인들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부활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입니다.
- 20-21 절 : 그때에는 악한 자의 모든 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선지자는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26 장에 기록 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그 때, 즉 악한 자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27 장

- 13 개의 구절만 있는 작은 장입니다.
-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그 날에": 1 절, 2 절 및 12 절
 - 1 절 : 다음은 만물의 회복에 대한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심판이 끝날 때 될 때까지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리워야단을 (욥기 41:34 에서도 언급 됨) 묘사 하면서 예언적 표징을 나타냅니다. 이사야는 리워야단을 통해 이 무시무시한 능력/힘에 대한 표징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교만과 높아짐을 가르치는 악한 힘/권세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과 관련된 것이므로 모든 악에 대한 모든 심판이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장막 뒤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힘들도 다루십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는 26 장 끝에서 땅이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살해당한 자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 2-11 절 : 이 부분은 되풀이 되는 "그날에"로 시작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 2-6 절 :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에게 표징을 줍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 될 것입니다.

- 가장 먼저 회복 될 것은 '포도원'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입니다.
- 5 장에 언급 된 바와 같이, 포도원은 반란 가운데 있었고,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원은 주님으로부터의 축복과 보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 이사야는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의 지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5 절].
- 이 상태에서는 열매가 증가하고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6 절].
- 7-9 절 :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지만, 그분께서 먼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열방의 심판을 마치 신 후에야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쟁보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정결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풍' [8 절]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감을 나타냅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 9-11 절 : 정결화에는 실제로 우상 숭배에 속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 제단의 돌이든 향의 제단이든지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때 몰입했던 주변 국가들로부터 배운 숭배입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끝나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장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 절의 요새화 된 성들은 포로로 간 기간 동안 비어있게 될 예루살렘입니다.
- 12-13 절 :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옛 백성을 이제 모으셔서 그들을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회복시켜셔야 합니다.

28 장

- 서론

- 이 장은 이사야 앞부분중 세 번째 파트를 시작합니다 (28-35 장).
-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에 관한 예언의 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파트에서 6 개의 연속적인 '화있을 진저' 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28:1; 29:1; 29:15; 30:1; 31:1; 33:1

- 28 장

- 이사야는 북부 왕국인 에브라임을 언급합니다 (에브라임은 12 지파 중 하나이지만 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예언적 이름이기도 합니다).
- 이사야는 첫 번째 '화있을 진저'를 시작합니다. 2 개의 세부부분이 있습니다.
- 1-6 절
 - 1 절 : 에브라임은 지리적인 아름다움이 있지만 강렬한 바람이 불어 올 것입니다. 이 바람은 앗수르의 공격입니다. 그것은 에브라임의 면류관처럼 보이는 것을 짓 밟았습니다. 즉 에브라임이 파괴되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직 자라나고 있는데 미리 따먹히는 무화과에 비유됩니다.
 - 5-6 절 : 이사야는 주님께서 경건한 자들, 신실한 남은 자들을 귀하게 대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장식과 명예의 면류관이 되실 것입니다. 대조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지리적 아름다움의 면류관이 짓밟히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로 이뤄진 충실한 남은 자들의 면류관은 높임 받고 있습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서 보호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6 절]. (이스라엘은 이 전쟁 가운데 3 년간 계속 있으며, 공격자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건한 사람들이 적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쪽 왕국은 정복되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지켜졌습니다).

○ 7-13 절:

- 7 절 : 이사야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인 지도자들의 상태를 선포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심한 그리고 실제로 취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환상/이상들을 볼 수 없으며 제사장들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9-10 절 : 이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한 자 한 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침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자신들을 무시하고 깔본다고 느꼈습니다.
- 11-13 절 : 이사야는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는 그들이 한 줄씩 한 줄씩, 조금씩 배우라는 조언을 거부 할 수 있겠지만, 앗수르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명을 모두 한줄 씩 한 줄 씩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선지자가 혼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술에 취한 통치자들이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기까지, 앗수르가 닥쳐올 것입니다.

○ 14-22 절

- 14 절 : 이제 이사야는 남쪽 유다 왕국을 언급합니다 - 그가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5 절 : 북쪽 왕국처럼 유다도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들이 앗수르와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속임 당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16 절 : 그러나 선지자는 단 하나의 보호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언급하여 그분께서 안전한 기반/기초를 위한 소중한 주춧돌이라고 말합니다.
- v.18 : 이사야는 유다에게 그들의 속임수가 드러날 것이며 스올과의 협약은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 20 절 : 유다는 너무 짧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그들은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몸을 감쌀 수 없는 너무 얇은 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적들에게 노출 될 것입니다.
- 21 절 : 심판은 계속 될 것이며,이 고통스러운 소식은 심판이 끝날 때까지 매일 계속 될 것입니다.
- 22 절 : 이사야는 유다에게 심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롱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 23-29 절

- 이사야는 심판이 정결과 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농업관련의 은유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목적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성취 되자마자 심판은 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조언과 권고는 훌륭하고 인도하심이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29 장

- 여기에서는 예루살렘과 남쪽 왕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자로 묘사 되는 사랑 받는 도시입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예언적 이름이며 '주님의 사자' 또는 '제단이 듣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음). 앞 장에서 심판에 목적이 있음을 보았듯이 여기에서도 같은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 1-8 절 : 두 번째 "화 (woe)".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앗수르의 군대로 둘러싸이게 허락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37 장에 대한 언급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절망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그 장면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은 통회함으로 낮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조롱한 북쪽 왕국과 대조됩니다. 북쪽 왕국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시점에 유다는 한동안 머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낮아지고 통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4 절 :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아진 것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유다의 적들을 흠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 5-8 절 :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에게 앗수르 사람들의 진영에서 185,000 명을 죽이라고 명령 하셨을 때를 언급합니다 (사 37:36 에 기록됨).
- 9-12 절
 - 선지자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언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애통해 합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눈먼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맹인됨은 그들의 심판의 일부입니다.
- 13-14 절
 - 이 구절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구절들을 신약에서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가 아니라 입술로, 외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 15-16 절

- 세 번째 '화'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눈멀은 마음과 영적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치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지혜로 계획하는 자들입니다.
- 17-21 절
 - 여기에서 선지자는 주님께서 갑자기 간섭하실 것이며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신성한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분께서는 눈먼자들의 눈과 귀막힌 자들의 귀를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을 제하시고, 의인들을 죄 안으로 유혹함으로써 갈등을 일으키는 악을 행하려는 자들을 제한하실 것입니다. 불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합니다.
- 22-24 절
 - 이 신성한 주님의 방문으로 인해, 지파들은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회복될 것이며, 수치심과 비난으로 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결케 된 예배자로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은 커질 것입니다 [23-24 절].

30 장

- 서론
 - 30-31 장에서는 애굽과 전쟁 동맹을 맺으려는 유다의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애굽은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유다에서 온 일부의 사람들은 이 동맹 관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 30 장은 유다에 임한 네 번째 '화'로 시작합니다.
 - 이 장은 두가지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 26 절 (전쟁 동맹)과 27 ~ 33 절 (주님의 심판이 임하여 앗수르의 멸망이 선포됨) 입니다.
- 1-5 절
 - 이사야는 유다가 앗수르에 대항하여 애굽과 전쟁동맹을 맺으려는 집요함 때문에 '화'를 선포합니다. 그는 애굽이 약한 상태에 있고

앗수르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전쟁동맹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6-7 절

- 소안과 하네스에 통치자가 있는 이집트 북부에 도달하기 위해, 유다는 북쪽으로 가는 길 가운데 남쪽 지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사자와 독사들로 가득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집요해서 이집트 북부에 많은 선물을 싣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이 그들을 도울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아무것도하지 말라'라는 뜻의 '라합 험 세 베스'라고 부릅니다.

- 8-11 절

-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서판에 메시지를 기록하라고 지시하시며 이는 이것이 보존되어 유다와 그들의 반역에 대해 증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12-17 절

-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권고에 대한 유다의 거부로 인해, 그들에 대한 심판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벽과 같을 것이고, 부서져 복구될 수 없는 도공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 15 절: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잠잠하고 생각하여 그들이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요청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생각은 전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큰 정복의 운명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18-22 절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방문하셔서 하나님 당신에게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빵과 물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숨어 있던 그들의 스승들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승들을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승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 23-26 절

-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은 그들의 땅과 모든 것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가축들도 풍요로울 것입니다.
- 그러나 25 절에는 여전히 큰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계 16:16)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 후에는 자연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빛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의 다양한 고통은 가라앉게 됩니다.

- 27-33 절

- 하나님께서는 앓수르를 멸망 시키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37:36 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가 열리는 밤과 같이 즐거워하며 악기들을 연주하며 여호와와 산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앓수르에 대한 모든 공격에는 일치하는 음이 동시에 연주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에 대한 유대인의 공격을 지켜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길을 잃었을 때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자녀들을 두었던 곳인 도벳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이 곳이 죽임을 당한 적들을 두게 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 장

- 서론

- 이것은 이전 장이 확장된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애굽과의 동맹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 이 장은 애굽과 동맹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다섯 번째 '화'로 구성됩니다.

- 1-3 절: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 때문에, 당신의 심판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동맹의 실패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 4-5 절: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으신다고 단언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그림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지키고 새들이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 6-9 절: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 유다는 그분께로 돌아오고 우상 숭배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앗수르가 패하는 것을 볼 것이지만, 그것은 전쟁의 힘이나 또는 인간의 수단/방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칼이 아닌 칼, 인간의 칼이 아닌 칼' (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37:36 에 나타난, 앗수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2 장

- 1-8 절
 -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가운데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한 왕이 그와 함께 하는 통치자들(방백)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통치자들은 누구입니까? 대답은 마태복음 19:28 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두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통치자들은 그의 제자들이 됩니다.
 - 2 절: 이 후, 우리는 이 통치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가리는 곳과 피하는 곳이 될 것이며, 마른 땅에 강물 같이 될 것입니다. 개인 간의 민감함/신경쓰임과 비교 대신, 형제 사랑/형제애가 우세할 것입니다

- 3-8 절: 건강한 영적 눈과 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올바를 것입니다. 존귀함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리석음 또한 드러날 것입니다.
- 9-15 절: 선지자는 동시에 두 장면을 봅니다. 그가 본 한 장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통치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유다의 현재 상황입니다.
 - 이사야는 여자들에게 일차적인 역할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서둘러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머니이자 아내들이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여성들은 또한 중보기도에 더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들에게 베옷을 입고 슬퍼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사야는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절에서 그는 1 년 남짓이 지나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는 심판의 표시로서,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신성한 방문의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 15 절: 그러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며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신실한 남은 자를 위해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 반대가 될 것이며, 이것을 숲이라고 말합니다.
- 16-20 절: 이 절들은 (성령님의) 방문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모든 축복과 자유와 명예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33 장

-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화'
-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12 절, 13-24 절

- 1-12 절

- 1 절: 하나님 백성의 적인 앗수르에 임한 '화'. 앗수르는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당신의 손에 쥐어진 도구로써의 역할을 완수하고 나서 약탈 될 것입니다.
- 2-4 절: 충실한 남은 자의 부르짖 음과 하나님의 원조에 대한 그들의 요청 [v.2]. 하나님 께서 당신의 팔을 들으실 때, 적들은 도망하고 [3 절], 그의 약탈은 모아질 것입니다 [4 절]. 방법? 애벌레가 길을 짜고 약탈당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돌려 쌀 것이다.
- 5-6 절: 이 구절들은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7-9 절: 이사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기로 한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는 그들의 현 상태를 설명합니다. 거론된 장소들은 이스라엘의 큰 도시들로, 이사야는 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예로 거명합니다.
- 10-: 이사야가 마치 모든 나라들이 어려운 위치/상황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겨를 잉태할 것이며, 그러므로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불이 적들을 태워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 13-16 절: 여기에서 하나님은 원근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죄인들은 심판이 이르렀기에 떨겠지만, 의인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15-16 절에 언급된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17-24 절: 이 절들은 왕이 오실 때의 왕국을 설명합니다.
 - 17 절: 이사야는 그분이 오실 때 사람들이 보게 될 것들을 설명합니다.
 - 18-19: 이 구절들은 잘못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의 오심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전쟁과 앗수르의 억압의 때에 어떻게 떨어졌는지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 20-24 절: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때의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 23 절: 앗수르는 탈취된 것들을 나눈 부서진 배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전함들은 부서지고 탈취된 재물들은 나누어질 것입니다.

34 장

- 서론
 - 34 장과 35 장은 28 장에서 시작된 예언적 사슬의 마지막 부분을 이룹니다. 우리는 28-33 장이 이스라엘을 다루고, 34-35 장은 전 세계에 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정화의 목적이 있으며, 또 심판 후에는 축복이 옵니다.
- 34 장은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 1-4 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심판이 모든 이에게 임할 것임을 나아와 듣도록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온 땅은 시체로 가득할 것이며, 산에는 그들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 4 절
 - 이 구절은 시선을 사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심판은 타락한 천사의 세력과 하늘의 만상 (태양과 달과 같은 하늘의 힘)을 포함합니다. 이 개념은 예언서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엘 2:10, 30, 31; 3:15; 스가랴 14: 6,7; 마태 복음 24:29].
 - 이 단어들은 또한 계시록 6:12-13 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 영원한 장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 21 : 1]
- 5-8 절: 심판은 이제 에돔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에돔인가요? 그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나타냅니다. 에돔은 또한 야곱의 후손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5, 36 : 5].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 편에 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 특정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8 절에서 시온의 모든 적들에게 보복할 것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 9-17 절: 에돔에 임할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 있습니다. 무슨 책임니까? 오바댜입니다.
 - 9-10 절: 에돔 (오늘날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가연성 석유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심판의 때에 시냇물에 역청 (타르)이 가득 차서 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땅은 밤낮으로 타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 11 절: 사람들이 없는 황량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새들이 그곳에 살 것입니다
 - 16-17 절: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르기를 이 땅을 그들이 거할 유산으로 준다고 하십니다.

35 장

- 여기에 반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34 장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설명하고 35 장은 회복을 묘사합니다.
- 1-2 절: 회복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꽃이 필 것입니다.
- 3-4 절: 이것은 심판을 견뎌낸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신실한 남은 자에게 이것이 구원이 될 것입니다.
- 앞 장에서 이사야는 시온을 위한 복수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신실한 남은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복수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사 34:8)
- 5-7 절: 이사야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신음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감각의 회복과 축복을 기뻐합니다. 그는 모든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며, 육체적으로도 회복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과 육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비되었던 자가 뒹뒹하게 될 것입니다. 말 못했던 자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곳은 시내와 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승냥이가 늪던 마른 땅에도 (34:13 에서도 언급됨) 물이 넘쳐 그들이 마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20]. 하나님은 승냥이에게 갈대와 풀을 제공하여 그들이 시원하게 하신 후에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 8-10 절: 그들이 이전에 세운 방어막이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한 거룩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들로부터 안전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며,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36 장

- 서론:
 - 이 장은 책의 두가지 주요 부분 사이의 역사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 이사야서의 첫번째 주요 부분은 1-35 장 입니다.
 - 두번째 부분은 40-66 장 입니다.
 - 36-39 장이 두 부분의 사이에 해당됩니다.
 - 이 장들의 초점이 되는 두 주요 인물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입니다.
 - 앗수르의 공격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36 장과 37 장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 1-3 절:
 - 이사야는 앗수르가 유다의 강하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하여 정복했을 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앗수르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 이사야는 옷을 씻고 개는 장소를 뜻하는 '세탁자의 발'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7:1-12 에서 이 '세탁자의 발' 이라는 용어를 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앗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고,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곳에 와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를 거절했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 사건들이 어떤 특정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말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여 사람들이 낮게 되었습니다.

- 4-10 절

- 랍사게는 앗수르 왕의 신하이자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여기서 그는 성벽으로 보내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인 셉나, 엘리아김, 요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동맹을 시도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 랍사게는 정치적인 뉴스가 퍼지는 것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애굽은 부서질 갈대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 랍사게는 또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파괴함으로 이스라엘을 되살리려고 노력한 것을 정치 뉴스가 퍼지는 것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8 장; 역대하 31 장]. 랍사게는 이에 대해 히스기야가 예배하던 신은 그가 부숴버리지 않은 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들은 항상 여러 신들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적하셨다는 인상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멸망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 11-20 절:

-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랍사게에게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이야기 할 것을 청합니다. 아람어는 공식 언어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만 알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대화를 이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사람들을 위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메시지를 선포하여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3 절].
- 그는 그들의 신들이 도와 준 모든 앗수르의 승리들을 그들에게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북쪽 왕국을 가리키는 사마리아 역시

그들에게 점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역시 패배할 것입니다.

- 그는 또한 그들이 앗수르에 항복했을 때 가지게 될 특권들을 열거함으로써 그들을 꾀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그들이 평화를 이루고 그들의 본토와 같은 부유한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16-17 절].
-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유혹이나 위협에 반응하지 않고, 왕이 명령한 대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 히스기야 신하들은 옷을 찢고 돌아와 현재의 상태와 적의 위협에 대해 히스기야에게 알립니다 [22 절].

37 장

- 1-4 절: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베 옷을 입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이를 낳으려 하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여자로 비유합니다. 적이 성벽에 있을 때 유다는 속히 구해야 합니다 [3 절].
- 5-7 절: 선지자는 처음에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는 원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예언함으로써 왕을 안심시킵니다.
- 8-13 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랍사게는 구스의 다른 지역에서 온 애굽 왕이 유다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랍사게는 이 다가오는 군대와와의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패배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 14-15 절: 히스기야는 받은 편지를 주님의 전으로 가져와 놓고 믿음의기도를 드렸습니다. 앗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전한 메시지 중 하나는 그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16-20 절: 앓수르 왕이 자랑하는 신들은 실제 신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어 주만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만국이 알도록 하시라고 말합니다.
- 21-25 절: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 A) 21-29 절: 선지자는 간절한 첫 메시지를 보낸 후 새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왕에게 보내신 메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 하나님은 시온이 정복된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고 당신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선포하십니다.
 - 22-23 절: 그러므로 의인화 된 시온은 조롱하는 왕을 멸시할 것입니다.
 - 26-27 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앓수르의 조롱하는 왕은 당신께서 열국을 징계하시기 위해 손에 든 도구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앓수르 왕이 정복한 나라들은 모두 약한 나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28-29 절: 산헤립 왕의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코를 꿰어 동물처럼 데리고 그의 땅으로 돌려 보낼 것입니다.
 - B) 30-32 절: 하나님은 그들의 땅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앓수르의 공격이 끝날 무렵, 땅은 2 년동안 어려움과 메마름이 계속 될 것입니다. 셋째 해에는 번영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 C) 33-35 절: 하나님은 앓수르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예언들에서 언급된 대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산헤립 왕을 앓수르 땅으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 36-38 절: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천사(사자)가 앓수르 진영의 185,000 명(십팔만 오천명)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분명히 합니다.

앗수르 왕은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38 장

- 이 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을 거의 끝낸 병입니다.
- 6 절
 - 우리는 이 병이 예루살렘이 앗수르에 포위되었을 때 생겼다고 이해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추측합니다. 즉, 그의 믿음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히스기야가 때로는 주님께만 의지하지만, 다른 때에는 다른 정치적 수단에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18:7, 13-16]. 일부 학자들은 이 병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하지 못한 믿음에서 히스기야를 깨우기 위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그가 죽을 것임을 말하도록 보내졌으며,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여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누우침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그가 행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히스기야가 25 세에 왕위에 올라 29 년간 통치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54 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 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나이 39 세 때에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히스기야는 10 절에서 '중년에' (- 인생의 최고의 때에) 스올의 문에 들어간다고 슬퍼합니다.
 - 히스기야는 자신이 나음을 받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하나님의 징조(sign)를 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7-11 에서 같은 이야기를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주님 앞에 산헤립 왕의 편지를

두기 전에 병이 생겼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랍사게의 위협에 대한 소식을 처음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렸고, 산헤립 왕이 구스 왕과 싸우러 갔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한 믿음 때문에 히스기야는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 형태로 랍사게가 그를 위협하는 두 번째 시도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와 문제를 주님 앞에 둘 수 있도록요. 이것이 이사야 38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7-11 과 이사야 38:21-22 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한 뭉치를 상처에 바르라고 지시했을 때 이 징조(sign)를 구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이 징조는 아하스 왕 시대에 발명된 해시계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히스기야에게 무화과를 상처에 바르라는 이사야의 조언이 의미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치유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졌음을 뜻합니다. 첫번째는 히스기야의 믿음에 달린 것이며, 두번째는 의학적 수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 뿐 아니라 의학적 수단으로 병이 나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치유를 행하셨음을 나타냅니다.
- 10-18 절: 히스기야는 전에 가서 그의 유명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 첫 번째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질병, 심리적 상태 및 슬픔에 대해 묘사합니다.
 -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성별하여 드리며 구원을 선포합니다.
 - 한가지 코멘트. 히스기야를 계승한 왕은 그의 아들 므낫세 입니다. 므낫세는 열두 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히스기야의 삶이 15 년 연장되었을 때에 태어난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하지 못한 왕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역대하 33 장), 히스기야의 삶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 장

- 히스기야의 불행스런 장면입니다. 그 사람 안에 숨겨진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역대하 32:24-26].
 - 왕이 나았고,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치유를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일이었고 그에게는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21 장에서 볼 수 있듯이 바사의 왕이였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후, 그리고 나서 앗수르에게 정복당한 뒤, 므로닥발라단은 다시 바벨론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이 두 시도 사이에, 그는 다른 왕들과 동맹을 맺어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재정적으로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 내려고 했습니다.)
 - 히스기야는 마음에 든 교만과 나음을 입은 흥분 가운데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꾸짖으며 말하기를, 이 실수로 인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부는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의 자손은 다니엘의 때처럼 바벨론의 환관(내시)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 히스기야의 반응은 8 절에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시대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시대의 상태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 교회 교부들은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이드를 주거나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는데 있어서 자신의 영적 부/자산을 모두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